# 조원씨앤아이 스트레이트뉴스 정기 전국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최근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입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씨앤아이 전화번호는 02.477.1368입니다.

#### Part SQ. 응답자 선별 문항

SQ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다음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1. 17세 이하(□ 조사중단)

2. 18~29세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세 이상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대전

5. 충남

6. 충북

7. 세종

8. 광주

9. 전남

10. 전북 11. 대구 12. 경북 13. 부산

14. 울산

15. 경남 16. 강원 17. 제주

#### Part A. 정치 현안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OA01.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

6. 조국 신당

7. 그 외 다른 정당

9. 잘 모르겠다

8. 지지하는 정당 없다

QA02.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3.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5. 잘 모르겠다

QA03. 귀하께서는 올해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1.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 2. 현 정권 견제를 위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 3.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세력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QA04.	귀하의 생각과 주변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당으로 가장 유력형
	곳은 어느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

6. 조국 신당

7. 그 외 다른 정당

8. 잘 모르겠다

### QA05. 귀하께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정하다

2. 어느정도 공정한 편이다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 QA06.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정하다

2. 어느정도 공정한 편이다

3. 별로 공정하지 않다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 Part B. 경제 현안

# QB01. 국내외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래폼 가운데 귀하께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로테이션)

1. 쿠팡

2. 인터파크

3. 네이버쇼핑

4. 위메프

5. 11번가

6. G마켓

7. 롯데온

8. 아마존

9. 알리익스프레스

10. 테무

11. 기타

- 12. 잘 모르겠다
- QB02.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로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은행이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공간한다

2. 어느정도 공감한다

3.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 Demo. 배경 질문

Demo01.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진보
- 2 주도
- 3. 보수
- 4. 잘 모르겠다

- □ 종료 인사: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사 중단: 죄송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이 아니십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 □ 할당 초과: 죄송합니다. 귀하의 연령대, 성별, 지역은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